

베트웨이 모회사 슈퍼그룹(NYSE:SGHC)은 오늘 2023년 동안 최대 2,500만 달러 상당의 보통주를 재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

이 회사는 미국 장 마감 후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2.52% 상승했습니다. 이는 표준 거래 시간 동안 2.92%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. 슈퍼그룹 주가는 지난 12개월 동안 68.17% 하락했습니다.

우리의 부채 없는 대차대조표는 견고하며,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주주 가치를 창출하고 주주에게 현금을 환원하는 데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."라고 Super Group의 최고재무책임자(CFO) Alinda van Wyck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. "우리는 적당한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라고 믿습니다."

슈퍼그룹이 주식을 재매입해야 하는 기간은 어느 방향으로든 변경될 수 있으며, 스포츠북 운영자는 주식을 재매입할 의무가 없습니다.

회사 측은 "재매입은 공개 시장에서 현가 또는 장외 거래에서 수시로 이루어질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[신용카드 현금화](#)

슈퍼 그룹의 중요한 움직임

슈퍼그룹은 특수목적회사(SPAC)와의 합병으로 상장 기업 데뷔가 약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게임 업계의 여러 기업을 포함해 수많은 탈SPAC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슈퍼그룹도 이러한 추세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.

이 스포츠북 운영업체는 자사주 매입 발표 외에도 주가를 저해하는 희석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노력에는 7,880만 주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었던 사모사채 취소가 포함됩니다.

"오늘의 노력은 자본 구조를 단순화하고 향후 회석 가능성을 줄입니다. 개인 워런트를 취소하기로 합의한 스폰서, 주식 발행 권리를 포기한 원 주주들과 함께 팀으로서 우리는 장기 비전에 전념하고 투자자를 위한 가치를 창출하고 자본 구조에 대한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"라고 닐 메나쉬 **CEO**와 리처드 하산 **COO**는 성명에서 말했습니다.

주식 발행은 시장에 새로운 주식 공급으로 인해 현재 투자자를 희석시킵니다.

미국 진출을 노리는 슈퍼그룹

슈퍼그룹은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에서 성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

하지만 최근 디지털 게이밍 코퍼레이션(**DGC**)의 인수가 완료됨에 따라 미국 진출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.[소액결제 현금화](#)

"**DGC**는 미국 내에서 베팅웨이 브랜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, 뉴저지, 콜로라도, 인디애나, 아이오와 등 미국 내 최대 **10**개 주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 및 게임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보했습니다. 슈퍼그룹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**DGC**의 미국 내 첫 베팅은 **2021년 3월**에 이루어졌습니다."